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4차	일자	2021.05.29. 18:30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참고자료: 장학제도 관련 본부 측 제안자료, 결의안 관련 공문 초안.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0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0	0	0	0	0	12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온라인 축제 진행 완료. 내일 단학대회 예정.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축제 완료. 6/9에 단학대회 예정.
사회과학대학	방구석 콘서트 영상 업로드 완료. 이번주 수요일에 기말고사 간식사업 예정.
약학대학	온라인 행사 진행 완료.
예술대학	예술대학 자체 동아리 만들려고 기획중.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체육대회 진행 완료. 기말고사 진행 방식 여부 조사 중. 전학대회 피드백: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통일공대 굿즈 2차 설문조사 5/31 ~ 6/2에 진행할 예정. 공퀴즈온더블럭 촬영 완료했고 편집을 거친 뒤 추후 유튜브에 게시 예정. 통일공대 간식배부 메뉴에 대해 논의 중이고 신청은 6월 둘째주 예정.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별로 식사비 지원사업 진행중.

전학대회 추가 피드백:

인문: 중감위 보고안건이 당일에 채택되었다, 표결 방식에 있어서 오픈채팅을 사용하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다, 통과안건을 굳이 의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통공: 전학대회 피드백: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한 제제 필요, 발언시간 엄수 필요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시험기간으로 총학생회실 상주 중단

중앙집행위원회	(집장단) 전학대회 사유조사 오류 인원 5/31까지 종합 후 수정파일 업로드 예정
	(교육자치)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피드백 13주차 전달 완료, 14주차 진행 중 학문연계 창업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완료 다전공자료집 업로드

	(연대사업) 학내 노동자 영상 업로드
	(일상복지) 기숙사 운영개선 관련 2차 설문 진행 예정
	(전략정책) 중대중심 인증 이메일 오류 관련 업체 미팅 중
	(홍보소통) 6월 정기 카드뉴스 제작 중, 오월의 광주 영상 제작 중
	(회계사무) 5월 회계 내역 정리 및 중대중심 업로드 예정
산하위원회	(문화위) 봄 축제 완료 및 축제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중
	(성평위) 인권문화주간 - 중앙퍼레이드 온라인 광장 진행 중
	(인복위) 인권문화주간, 성년의 날 이벤트 상품 발송 예정 인복배송 결과보고 준비 중
	(장인위) 인권문화주간 진행 완료
	(졸준위) 학위복 리디자인 TF 1차 회의 진행 완료

3 논의안건

1.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 안건설명
 - 본부 측 제시안 설명 **참고자료**
 - 장학TF 활동 및 이후 경과 보고
 - 본부 측 설문조사 제시안 설명 **참고자료**
- 장학제도 개정 방향 논의

총: 논의안건 1번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다.

부총: 일단 안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으신지?

총: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부총: 네 얼마전 장학TF를 진행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학교 측에서 장학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요하고 있는 걸 다시 알려드리고 지금 장학제도 적용은 일단 연기를 요청을 해서 이번 2학기 성적에 대해서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도의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고 이제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다. 일단 학교측 설명의 요지는 저희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 이미 성적장학 위주의 장학제도를 소득분위 및 기타 역량을 평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바가 있고 서울권 유수 대학 중에 저희학교를 제외하고 성적장학을 지급하는 비율이나 제도에 대한 변경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 식의 배경설명이 있고 현재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은 지금 10%를 전체 학생의 10%를 성적장학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제도인데 여기서 성적으로만 지급하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3%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7%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에 학교에서는 소득분위 장학금으로 전액을 돌릴 것을 제시를 했으나 지금은 소득분위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성적과 소득을 동시에 산입을 한다든지 아무튼 종합적인 기준을 도입한 장학금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올려드린 설문조사도 본부 측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초기에 장학TF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 다음 학기에 바로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장학TF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학생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거나 하는 것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고 무늬뿐인 TF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지금 장학TF활동은 중단을 한 상태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는 중운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다. 일단은 지금 본부 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카톡방으로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다. 자료양이 좀 많은 감이 있기 때문에 45분까지 정독을 하시고 다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부총: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네 일단 본부제시안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부터 의견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지금 장학제도 개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본부 측에서 이 개정안을 들고올 때의 근거는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악화되었고 또 전체 대학사회가 예를 들어 성적이나 기존에 고수해왔던 기준이 아니라 소득 장학 확대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었다. 저는 일단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성적장학금 제도를 10%에서 3% 정도로 감축을 하고 7%를 가지고 변경된 안에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3%는 100% 성적장학금, 3.5%는 성적과 소득을 반반씩 산입하는 장학금, 그리고 3.5%는 소득 100%로 하는 장학금으로 나뉘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각 장학금간의 완충지대 내지 예를 들어 소득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제도가 처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장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 일단은 읽어보신 내용에 대한 의견을 한분씩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공백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장학금 기준에 가지고 있던 재원의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기준이 바뀌어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의 수나 액수가 달라진다고 해도 장학금 예산 전액을 다 집행할 하겠다라는 답변은 받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본부 측에서도 설문조사 가안을 제시하는 만큼 저희가 시간을 많이 벌었음으로 학생의견수렴을 중점으로 해서 이 장학제도 개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방향성이다. 그래서 중운위에서 어떤 확정된 안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총: 더불어서 조금의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 장학제도에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을 할 때 이미 소득분위 장학금은 중앙 사랑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대표자분들의 의문이 있었다. 근데 우선순위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분위 장학금이 늘어난다고 한들 장학금의 총액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주무부서의 입장이고 그것이 데이터상으로 옳은 수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부총: 다들 의견 정립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준비가 되시는 대로 한분씩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약학.정: 약학대학 발언해도 되는지?

부총: 네

약학.정: 여기 자료 주신 것에서 1,2,3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개편된 새로운 개선안이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총: 네 1,2,3안은 학생지원팀이 가져온 가안일 뿐이고 대표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의 비율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끼리 논의를 하고 수치를 변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총: 만약에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없는 안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지급 비율 자체를 변동하는 그런 안을 만든다고 하면 학생지원팀이 주무부서이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값을 구하면 된다.

인문.정: 인문대학 궁금한 게 있는데 부총학생회장님이 처음에 얘기해주신 안은 저 1,2,3안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부총: 제가 처음에 일단 1,2,3안은 예를 들어 저희가 성적장학금, 기존의 성적장학은 3%로 줄인다고 했을 때 그 3%를 어떻게 배분하냐에 대한 안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비율을 얘기한 것이다.

총: 네 그러니까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성적장학금을 3%로 감축 할 시에 그 3%를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4,5페이지는 줄어든 7%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자료이다.

약학.부: 약학대학 하나 질문이 있다. 이게 꼭 개선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건지?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한 지금 원론적인 의문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위에서는 바꾸겠다는 입장인지?

총: 주무부서가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왔고 이제 총학생회장단은 현 시기에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부총: 사실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총장을 비롯해서 본부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고 지금 총학생회장단측에서는 일단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나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긴 시간동안 의견수렴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대한 일정을 딜레이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사실 상호간에 곤란한 상황이긴 하다.

간호정: 간호대 질문이 있다. 지금 단위의 의견을 물으시는 게 지금 자료 자체에 대한 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중운위가 이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인지를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다 물으신 건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하는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여쭙는다.

부총: 일단 전체적인 의견을 여쭙긴 했으나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큰 틀에서의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일단 여쭙겠다. 아까 약대에서 질문하신 원론적인 입장도 좋고 혹은 이 안 외에 이 안에 관련되거나 혹은 이 안 외에 새로운 방식의 규정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희가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차후에 설문조사를 비롯한 의견수렴을 할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ppt에 있는 안과 저희가 만든 안을 포함해서 그냥 안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학우분들의 선택에 맡길지 아니면 중운위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을 몇 개 추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도록 선택지를 제시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아까 1,2,3번으로 나와 있던 성적장학금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냐에 대해서 중운위 차원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세 개 자체를 그냥 학우분들의 선택에 온전히 맡길 수도 있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약학정: 약대 발언하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장학금을 재배분하는건 저도 동의를 하는 쪽이긴 한데 1,2,3안에서 어쨌든 지금 개선안을 봤을 때, 결국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재분배한다는 얘기 같은데 저는 그 소득분위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다.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소득산정방식에서 이제 2번 항목에 재산을 소득환산액이라고 했을 때 결국 재산이 반영이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산은 사실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인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소득분위가 저도 결국 집값이 올라가서 올라간 상태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소득이 증가한건 아닌 상황이고 근데 지금 소득산정 방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저는 지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장학금 재배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장학금 기준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산만 오르고 수입이 증가가 되냐가 안 되냐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장학금 지급을 할 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 아닌가 단순히 소득분위 구간에 대해서만 고려가 되어있고 현실적인 부분은 너무 고려가 안 되어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총: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소득산정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정방식이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산정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산정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현실적인 기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부총: 아마 지금 약대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사례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실질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체계화해야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방금 총학생회장의 말씀대로 이 이상의 어떤 실질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을 학교차원에 마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여쭙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실질소득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문의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논의를 할 때는 일단 이 소득기준이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한다는 전제를 일단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총: 부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문의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가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 제외가 된다면 모든 가안들이 싹 다 변동이 되어 할 가능성이 크다.

인문정: 인문대학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들은 이제 전액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다. 그럴 경

우에는 추가적으로 성적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상황인지? 약간 궁금하다.

총: 일전대로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의 수혜가 불가능하다.

인문.정: 그러면 만약에 전액장학을 받는데 성적장학금의 대상자가 되면 그 경우에는 차순으로 밀리는 것인지?

총: 네 대신 본인이 성적우수 장학자라면 증명서는 발급이 되겠지만 그 장학금은 다른 사람에게 후순위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때 지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 기타장학금,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교내 중앙사랑장학금 순서대로 후순위가 배정이 된다. 그래서 장학금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사실 총학생회장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성적장학금 10%를 3%로 감축을 하고 3%의 성적장학금을 3페이지에 있는 가안 중 1안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나머지 7%의 금액은 성적 +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하고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오로지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부총: 저는 사실 이중에 택하자면 3안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장학금이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수혜여부나 아니면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설문을 맡겨 봐도 좋고 특히 설문을 맡길 때 본인의 수혜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답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간호.정: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전에 TF에서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변경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마지막 참고자료의 일정을 봐도 설문조사가 6월 1~2주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베이스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가나 진행 방향을 따질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의견을 들려도 간호대 의견을 수합한 대표자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으로 드러게 되는 것 같아서 단위별 의견수합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비공개 자료인 것을 알아서 그냥 의견 여쭙는다.

부총: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잡혀있는 일정은 지금 무용하다. 지금 기간을 연기했고 얼마 전에 주무부서 담당자랑 논의를 했을 때는 본인도 6월초에 설문조사 기간을 적어놓기는 했으나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는 저희가 긴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 단운위 의견 수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면 될 것 같다.

총: 근데 저는 대표자로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대표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현 시기가 부총님께서 끝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이기도 하고 타 대학의 성적장학금 지급 방식을 가지고 갔고 지금이 제도를 개선하는 적기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런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하나의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

간호.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원론적인 것을 따져야 할지 말지도 단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단위에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중순위에 어떻게 들고 올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한다. 단위가 1,2,3안 중에서 어느것이 나은 것 같냐 라고 그런 식으로 단위별로 의견이 수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지금 대표자 개개인 모두가 수혜여부 또는 위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이 의견을 내는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위별 의견 수합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의견 내겠다. 우선적으로 저희도 단위 의견을 먼저 수합하고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학TF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것이 대표자분들 자체에서도 뭔가 이 장학제도가 개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 같다. 아무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만으로는 이 장학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학우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운영목적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도 양극화 심화의

대비 그리고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장학제도 개선 이렇게 두 가지로 적혀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 대학에서 이 안을 변형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 장학제도를 개선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학우분들께서도 이 장학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과.부: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 지난번 장학제도 개선 TF에서 단위별 의견을 수합하실 때 저희 단위에서 고소득분위라고 해서 등록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뭔가 이 외에 소득분위 장학금 말고 다른 기타 장학금을 통해서 고소득분위도 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학교 측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얘기한 답변을 들었었는지 궁금하고 또한 앞서 말씀해주신 그 운영 목적처럼 소득분위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 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학교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차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령해야하는 것이라면 뭔가 1,2,3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학교본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학금의 수혜 비율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 그리고 기존 4분위까지 전장에서 5분위까지 전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중앙사랑과 특성화 및 근로장학금을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뭔가 현시점에서 해당 제도를 어차피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논의가 다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 개선안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린다.

부총: 일단 이 자리에서 각 중운위원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저희가 10%에서 3%를 성적100% 장학금으로 하고 혹은 그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장학금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장학제도나 이런 걸 마련하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도 중운위에서 안을 제시해달라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안을 제시를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단운위라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고 다만 큰 틀에 대한 중운위원 의견은 오늘 좀 공유를 해야 이제 그것이 단운위 논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것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인문대도 간호대, 경경대, 사과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개 동의를 한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도 단운위 의견을 받아보아야 하는 게 지금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크고 저는 장학TF도 안 들어가봤고 아직 이 안에 대해서 살펴는 봤지만 세부적인 안이나 세부적인 학교 측의 설명을 듣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소득분위가 높으신 분들은 전액장학금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들은 성적장학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선불리 개정을 했을 때 소득분위가 높은 학우분들과 소득분위가 낮은 학우분들 간의 계층갈등이 있을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강신청TF도 어느 정도 장기간의 시간을 들고 TF가 결국에는 수강신청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냈지만 그것도 역행하는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학우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어쨌든 간 제도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 이것도 그러한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까 약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총학생회장의 말씀에도 동의를 한다. 소득분위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소득분위 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인문대학은 가장 단순하고 원론적인 말일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단위별 의견수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의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장학제도 관련해서는 학생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도 붙이고 그다음에 학교와 학생간에 논의를 가지는 과정 속에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생각밖에는 오늘 전달을 못해드린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일단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경경.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자면 이게 저희가 큰 틀을 논의하기에도 이 자체를 학우분들께서 이해를 하실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린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논의할 때는 차라리 학우분들께 어떻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 취합이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안을 생각해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바로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

을 취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부총: 네 일단 뭐 오늘 안에 이 논의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없었기 때문에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 실질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소득분위가 그리고 이 개선사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그 설명을 보고 또 다시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고소득자도 장학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지금 제일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중위소득과 소득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 여기서 굉장히 큰 이 안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큰 등록금 부담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요지인데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주무부서에 가서 들도록 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장학제도를 개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 자체도 일단 의견 수렴을 맡겨야겠지만 중위위 차원에서 방향성 자체를 거스르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몇 가지 안을 만들어놓고 그 방향성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학우분들한테 여쭙봐야 하는 것이라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는 시험기간이니까 다음 중위위가 있기 전까지 보충자료를 가져 오겠다. 그리고 단운위에서 논의를 하실 때 지금 충분치 않은 설명이었지만 이 장학금 개정의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단운위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실 분은 말씀해주시고 다음 논의안건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경경정: 경경대 질의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이 장학금 제도 개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고 이 사안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저희가 짜야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맞는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지? 이게 정해져야 저희가 단운위 내에서 논의할 때 방향성을 저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개정안 자체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개정안은 이뤄져야 되지만 이거에서 제가 궁금한 건 축소되는 장학금 금액을 저희가 조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금액 자체에서 비율만 저희가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조금 정해져있어야 저희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전보다 바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총: 네 일단 10%에서 3%로 줄이는 것은 총학생회장단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줄어든 7%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성적장학금 3%를 어떻게 배정하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근데 인문대학도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든 의문은 제도를 어쨌든 간에 3%로 변경하는것에 총학생회장단도 동의를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체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반발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 어떤 제도든지 간에 100%의 학우분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표자의 입장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선택 또한 하는 것이 대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우분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이다.

경경정: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총학생회 측에서는 왜 10%를 3%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혹시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에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부총: 일단 3%라는 기준은 바꿔 말하면 왜 7%를 소득분위에 추가로 선임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주무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중위소득자 사각지대를 어떤 퍼센트로 도입을 했을 때 해소가 가장 잘 되냐 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다. 3%와 7%가. 그래서 중위위에서 다른 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또 돌려봐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장학제도를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성의 근거가 되는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퍼센트로 제시가 되고 있다.

경경정: 네 확인했다.

통공정: 공대 의견이다. 생각이 싫어지느라 너무 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개선안을 학교 내부와 저희 대표자들끼리 확정을 짓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성폭력교육이나 인권교육처럼 반드시 봐야만 성적확인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 그것처럼 학생지원처에서 이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우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는 게 먼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ppt나 문서로 오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제가 보기에 자료도 어려운데 일반적인 학우분들께서 보시기에 자료도 어려울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1차적으로 개선을 하나 마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비율을 먼저 봐야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 측이나 학교 대표자 측에서 봤을 때 대충 55:45면 그들의 의견대로 개선안으로 나가도 되지만 만약에 총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으로 뭐 7:3, 8:2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개선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 개선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학교 측에서 영상으로 좀 제작해서 배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시청한 후에 학생총투표를 시행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게 1차원적인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학기 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저는 수혜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6년도에 입학할 때부터 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에 많은 반발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도 나는 잘살지 않는데 왜 이 정도로 나오고 재네 부모님은 자영업자여서 세금 계산이 안 되어서 나보다 잘사는데 분위가 더 낮다 이런 식의 말이 비공식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장학재단에서 말하는 소득분위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신뢰성여부도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선하는 것을 틀로 잡고 논의를 하는 것 보다는 개선 하나 마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단운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도 그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상이다

총: 네 우선 학생 총투표를 말씀드리자면 장학제도가 학생 총투표의 안건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의견이고 두 번째로 3%로 감축을 하나 안하냐에 대한 설문조사의 표본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2019년 저희학교 교내 재적생의 소득분위별 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2019년 기초수급자 분들 642분이 계시고, 차상위 965, 1구간 1964, 2구간 1591, 3구간 1721, 4구간 1724, 5구간 700, 6구간 1281, 7구간 1296, 8구간 3223, 9구간 3361, 10구간 4274 명의 학우분들이 이렇게 소득분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설문조사를 감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저희가 이제 제기한 문제의식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실지는 의문이다. 데이터 상으로 봤을때에도 고소득분위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문이 될까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든다.

간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일단 이 장학제도안 자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나온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하고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될게 학교가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들고 온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게 극적으로 정말 반대가 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야 한다면 단위별 의견이 그렇게 모여져서 반대를 해야 된다면 반대를 하는 것이 학생회가 해야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그만큼 일단은 본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중운위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약간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해를 못하는 말이 있는데 사각지대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단운위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사각지대를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부총: 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위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장학지원이 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중상위소득이 이제 문제이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소득분위 구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준의 장학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하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들은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실질적인 부담 혹은 실직적인 어려움이 없느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본부의 의견이고 예를 들어 제가 분위 하나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6분위부터 장학재단에서 지급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장학지급이 들어가면 5분위가 오히려 6분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통공정: 이 얘기는 그냥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항상 가졌던 생각인데요, 성적장학금 한정의

로 그냥 등록금 범위 넘어서도 지급을 해주면 다 해결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이 성적이라는 게 저는 '중앙대에 왔으면 다 특출나게 똑똑한 사람이 항상 4.5를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한다. 성적이라는게 노력한대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성적장학금 한정으로 등록금 범위가 넘어가도 지급을 해준다 하면, 높은 분위에 계신 분들이나 낮은 분위에 계신 분들이나 딱히 반발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 전장을 받으시는, 분위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인 분들은 그걸 받으면 그걸 본인의 생활비로 쓰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항상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지원처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내용은 전달 못 해주시는 건지 여쭙보고 싶고, 이거에 대한 다른 단대 대표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

총: 저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 등록금이 한국장학재단이나 기타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굳이 등록금 이외의 장학금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못 받은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항상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금 초과 시 장학금 수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

간호.정: 예, 덧붙여서 한정된 자원 내에서 비율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그렇다.

사과.정: 그 사과대도 잠시 의견을 드리면, 우선 총학생회장단께서는 장학 TF에 직접 참여도 하셨고 그리고 주무부처와 직접 소통을 하시느라고 성적 장학금의 비율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중운위 내 단위에서는 사실 정·부 둘 중에 한 명도 성적 장학 제도 변경 TF에 들어가지 않으신 단위도 계시고, 그리고 관련된 비율에 대한 안도 오늘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 비율 변경에 대한 완벽한 동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인거 같다. 그래서, 그런데 성적 장학 제도라는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한 번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사실 몇 년동안 지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어떤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을 그대로 중운위가 성적 장학금비율을 변경하자라고 계승을 하기보다는, 우선 공대가 아까 제시해주신 의견처럼 개선 유무에 대해서 중운위 내에서 먼저 합의점을 이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자연.비: 네 자연대 추가의견 드리자면 그런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이 자료를 넘어서 추가적인 본부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거를 단운위 차원에서 논의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제가 공지된 걸로 보서는, 중운위 외 비공개라고 되어있다. 혹시 어느 정도까지 단운위에서 협의를 해도 되고, 공유를 해도 되는 내용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부총: 그거는 일단 다시 여쭙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단운위에 자료를 공유하기보다는 지금 중운위 안에서도 질문이나 의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가 끝난 후에 이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건 카톡방으로다가 수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중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조금 더 보충 설명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 보충설명자료를 가지고 단운위에 가져가셔도 되고, 혹은 이 자료 자체를 단운위에 공개를 하시길 원하는 거라면은 일단 주무부서의 공개범위는 여쭙보도록 하겠다.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다, 이 자료에 대해서.

간호.정: 대표자의 완전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단운위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부터는 시험 기간이라 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좀 시간이 저는 여유가 있다 라고는 생각이 안돼서, 그 부분을 지금 정해서 그거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의견 드린다.

부총: 일단은 지금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첫 번째 목표는 중운위 내에서 이 제도 개정의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것 같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조사위 회의를 한 번 진행하려 하는데요, 그 날 조사위 회의 끝나고 간소하게 중운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 전까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다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운위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이제 시험기간이 끝나면 방학이다.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운위와의 논의를 거쳐서 좀 구체화를 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제가 몇 주에 뭐하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거 같다.

총: 일단 올해 2학기 성적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이 장학 제도라는 것이 저희가 변경에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칙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중에, 전에는 반드시 학칙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인지를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그거는 혹시 저도 의견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학기 성적에 대해서 사정을 할 때 적용이 될 기준이기 때문에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논의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칙 개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일단 제도를 변경을 하고, 그 제도가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안에 학칙 개정까지 다 이뤄져야한다고는 제가 이해하지는 않았는데 그 점은 주무부서에 다시 확인을 하겠다. 일단은 이게 전체 재원이 변하지 않는 한은 주무부서에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걸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추후에 학칙을 개정해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 다.

간호.정: 네, 저희 단운위도 종강을 해야 이 부분을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종강 이후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조사위 회의 끝나고 논의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자료는 만들어 오는 것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 이 방향성에 대한 동의를 좀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회장단의 아주 간곡한 입장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네, 더 이상 추가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전학대회 결의안 후속조치 논의

- 협의체 개설
- 합의 도출/결렬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총: 일전에 공지방에 학교 본부 재정정보 공개 요구안 송부 및 협의체 개설 요청 공문 가안을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 내일 오전중으로 해당 공문을 발행하고 협의체 회의 날짜를 조율하도록 하겠다. 조율을 하고 그다음 중운위 구성인원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ZOOM 링크를 판다던지 현장참석자를 늘린다던지 해당 내용은 또 학교 본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부총: 공문에 대해 피드백 주실 단위가 있으신지?

인문.정: 공문에 대한 피드백은 인문대학은 별도로 없고, 만약에 협의체에 총학생회장님께 궁금한게 있는데 그 협의체가 신설이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학교본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는건지?

총: 우선 이번 결의안은 모든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담긴 결의안이어서 학교본부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본부가 간담회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면 저희 중운위 차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우선 협의체가 개설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협의체를 열었으나 저번 간담회와 동일한 맥락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중운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인문대학은 안타깝지만 그 협의체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학교 본부의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럴 경우에 중운위가 어떻게 해야할까가 지금 문제인 것인데, 지금 중운위가 지금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학교에 어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우분들은 중운위가 지금 제대로 잘 학교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좀 외부적으로 학우분들이 좀 알 수 있게 중운위가 이렇게 학교와 협의도 하고 있고 이런 학교의 입장을 규탄한다 라는 뭔가 대자보나 입장문 같은게 좀 결렬이 되면 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게 가장 일차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걸 또 얘기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는 일단 지난번 학생총회에서 총학생회장단이 저희가 이제 협의체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대를 잘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데 지난 학생총회 이후에 양상 자체가 학생과 학교간의 구도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학생 내부에서 지금 여러 사안을 가지고 대립하는 구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해서 일단 중운위가 외부적인 액션, 그러니까 대자보 같은거나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발행을 한다면 이 자체가 학생과 학생간의 구도가 아니라 학교와 학생간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문대학은 일단 이정도 로만 생각을 해왔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제 협의체 개설여부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한다. 우선 협의체 개설을 요구를 하고 협의체가 소집이 된

다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회의를 진행하고 저번 간담회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중운위 차원에서 대자보나 입장문을 발행하고 이런 후속조치에도 학교본부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연서명 운동이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운동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해당 내용들은 협의체의 개최 양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차 회의에서는 이정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저희 총학생회장단은 내일 날이 밝는대로 공문을 조속히 발행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학교본부의 입장이 총학생회장단에게 전달이 된다면 즉각 중운위분들께 공유해 드리겠다.

사과.부: 정말 간단한 궁금한건데 공지방에 올려주신 공문 자료 위에 자료로 송부되는 것 맞는지?

총: 제가 내일 발행하기 전에 최종본 올려드리겠다. 지금 공문번호도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중으로 최종본 피드백 받고 바로 발행하도록 하겠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논의안건 2번과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질의 해주시기 바란다. 없으신걸로 하겠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기타안건이다. 혹시 상정하고싶으신 안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혹시 시험기간 중운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총: 우선 차주에는 조사위 회의를 진행을 하고 혹여나 협의체 관련된 공문이 온다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 장학제도와 관련 되어서도 방금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까지는 해야하지 않을까 중운위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총: 이다음의 중운위는 종강 이후에 하겠다.

총: 아 그것 궁금하신지? 시험이 끝나는 날 6/24이 궁금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문.정: 6/21일에 끝나는 것 아닌지?

총: 화요일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시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된다. 주차가 월요일에 끝이 난다 이번학기에는.

간호.정: 회의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닌지?

총: 네 저도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총: 21일인지? 지금 나온게?

총: 네 21일이다. 그러면 6/7에 회의를 진행을 하고 6/14에는 쉬고 6/21에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혹여나 시험전에 또 협의체가 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소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대표자분들이 숙지해주시기 바란다. 안건 있으신지?

인문.정: 진짜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장학제도 이거를 단운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논의를 하지말고 추후에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된다.

부총: 지금 가져가서 논의를 하셔도 좋은데 일단 지금 당장에 하신다고 하면 이 자료라던지 이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못드릴 것 같아서 그걸 받고 저희끼리 논의를 진행한 후에 단운위로 가져가는데 낫지않겠느냐 라는 의견 제시하겠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일단 단운위 회의는 보류해주시고 저희가 추가 자료를 받아오겠다.

사과.정: 사과대 이와 다른 의견 있는데 지난 23차 회의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전학대회 피드백으로 총 네가지를 전달해 드린 바 있다. 그중에 한가지 피드백인 전학대회 의장의 개정안 상정 및 찬반토론 참여에 대해서 재고해주시기를 요청드렸었다. 이에 대해 그때 총학생회장단께서 총학생회장도 의장이기 이전에 대표자 신분이므로 개정안 상정, 수정안 발의, 찬반토론 참여 등을 절차에 맞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고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피드백에 대해서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해주셨다. 이에 대해서 사회과학대학에서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진행했는데 우선 크게 세가지 의견이 있었다.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의장은 의사진행을 총괄하는 입장이라 사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당일에 추가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전학대회 준비를 미비하게 한 것의 반증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로 찬반토론의 경우 특히 의장이 안건에 대한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므로 총학생회장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세 번째로 의결과 회의를 해야 하는 기구에서 의장이 사회자가 되어야하는데 직접 진행 이상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 원칙과 토론 규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이미 논의를 마친 피드백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단운위에 재논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회과학대학은 전학대회 피드백절차에 맞춰서 전달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피드백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으실지는 추후에 총학생회장단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다.

총: 네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또 제가 안건을 상정한 중운위 일원 중 한명이지만 상정된 안건이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논의 양상에 따라서도 저 또한 의견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의는 일전에 진행된 회의의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네 사회과학대학도 일전에 23차에서 진행했던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의견은 여전히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방금 발언한 것의 끝무렵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피드백 절차에 맞춰서 피드백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단에서 논의하시고 2차 전학대회 이전에 결정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상이다.

총: 네 감사하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중운위 24차 회의는 폐회하도록 하겠다.